

International Shrine of Haemi Martyrs

디지털 역사 체험관

Digital History Experience Center

“천한 백성을 정잡게 대해주니, 내게는 천국이 두 개 있습니다.”

「황일광 시몬」



해미순교자국제성지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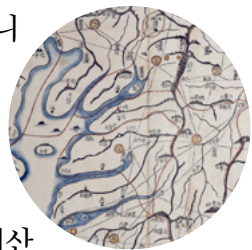
인사말	3
해미순교자국제성지 소개	4
해미순교자국제성지 디지털역사체험관 소개	6
해미순교자국제성지 디지털역사체험관 콘텐츠 소개	
함께 기억하고 바라보는 서산	8
성지의 시간	10
생명의 찬가	12
야생화	14
빛의 동산	16
빛의 찬가	18
빛의 도서관	20
빛의 랩소디	22
만든 사람들	24



인사말

평화를 빕니다.

해미순교자국제성지를 담당하는 한광석 마리요셉 신부입니다. 한국 천주교회사의 중요한 단면을 알려주는 국제성지의 ‘디지털역사체험관’을 개관하며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늘 관심과 배려를 주신 김종수 주교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님, 이완섭 서산시장님과 성일종 국회의원님을 비롯해 물심양면으로 주신 많은 분의 도움 덕분에 오늘의 기쁨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역사체험관은 점차 증가하는 순례자들과 해미 지역을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해미, 이곳은 천주교를 새롭게 신앙하던 우리 조상들이 인간 존엄과 평등 실현을 꿈꾸고 실천했던 곳입니다. 그들이 꾸었던 꿈은 조선왕조의 역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었으며, 내포 지역 정신 문화유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서산 시민과 더불어 이 자랑스러운 기억을 되새기며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이 디지털역사체험관은 역사가 현대의 기술과학을 만나는 공간, 지성과 감성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출발합니다. 이곳에서부터 바쁘고 각박한 현대인에게 소중한 가치와 감성이 공명되어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의 파도가 퍼져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를 더욱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계속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11일
해미순교자국제성지에서
한광석 신부



해미순교자국제성지 소개

해미순교자국제성지는 동아시아 유일의 국제성지이자 세계 4대 국제성지에 속한다(2024년 6월 현재). 국내의 많은 성지가 한국 교회사의 소중한 기억을 담고 있지만 국제 성지로 인정된 곳은 해미성지가 유일하다. 서울 대교구에는 교황청이 승인한 국제순례길이 있다.

국제성지와 국제순례길은 그 자체로 가치의 차등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없다. 다만, 평신도의 선교 활동을 통해 성장하고 박해를 받으며 순교로 지켜낸 한국교회사를 두루 품는 의미를 담는다. 순례길이 여러 순례지에 담긴 기억을 연결하듯, 해미국제성지는 한국교회 신앙의 못자리인 내포의 기억을 담는다.

해미성지는 내포 지역에 자리잡았던 신앙 공동체와 연결된다. 내포 지역은 가야산과 오서산 일대의 산촌 및 해안 지대를 포함한다. 문자로 보자면 내포는 육지 안에 포구가 발달한 곳을 나타낸다. 실제로 현재의 해미 일대까지 바닷물이 흘러들어와 배가 다녔다. 이는 대동여지도에서도 확인된다. 면적으로 환산할 때 현재 충청남도 전체 면적의 48퍼센트에 육박하는 지역에 해당한다.

『택리지』를 지은 이증환은 내포를 충청도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꼽았다. 이는 내포 지역이 산과 바다와 구릉 지대로 인해 풍부한 자원과 문화를 누렸음을 나타낸다. 내포 지역은 육지 깊은 곳까지 배가 드나들 수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예로부터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

어졌다. 또한 높지 않은 산과 비교적 완만한 산지 구릉에는 불교 사찰뿐 아니라 천주교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충청남도 일대의 동학농민항쟁도 내포 지역의 산촌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특히 내포는 한국천주교회 역사상 가장 이른 시기에 큰 신앙 공동체가 생성된 지역이기도 하다. 이 지역의 천주교인들은 신분적 차별이 없는 공동체를 형성하며 신앙을 살았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의 충청감사 박종악이 국왕 정조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드러난다. “이 종교를 믿는 자들은 서로 교중(交中)이라 부르며 노비와 주인이 준비의 구분도 없고 멀고 가까운 사람이 친소의 구별도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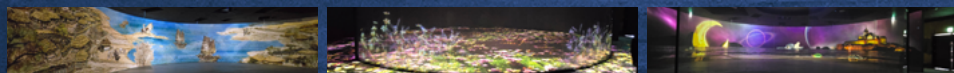
이처럼 내포 지역에 천주교 신자가 많이 살았기에 해미읍성은 천주교 신자들을 문초하고 형벌이 이뤄진 장소가 되었다. 특히 천주교 역사상 가장 극심한 박해로 꼽히는 병인박해(1866-1868)에서 해미성지가 기억하는 대부분의 순교자가 희생되었다. 이들은 읍성의 서문 밖과 현재 해미성지가 위치한 조산리 일대에서 처형되었다. 이후 1932년에 피라외방전교회의 선교사인 바로(P. Barraux, 1903-1946) 신부가 그 역사의 흔적을 쫓아 시신을 발굴하여 수습했으며, 1984년에 이르러 오늘날의 해미성지가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했다.

해미국제성지 디지털역사체험관은 이와 같은 내포의 꿈과 역사를 기억하고 현대 첨단 기술의 도움을 받아 역사와 문화를 전달하는 공간이다. 이 공간은 내포 지역에서 피어난 새로운 세상, 평등과 자유의 꽃을 피운 역사와 더불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곳이기도 하다. 디지털역사체험관은 지식과 감성, 예술과 과학이 어우러져 현대인에게 큰 울림을 전해주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해미순교자국제성지

디지털역사체험관 소개



해미순교자국제성지 디지털체험관은 전면 메인 미디어월, 투명 스크린, 상부 스크린, 바닥 스크린 등 총 4면의 입체적인 스크린 구성을 통해 감성적 몰입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이 역사체험관은 건축이 지닌 상징성과 함께 4면의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와 융복합 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디지털역사체험관은 내부에서는 특정 인원이 아닌 모두가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외부에서는 휴게 및 조망이 가능한 순환

구조의 열린 공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이 공간에서 내외부의 기능적, 심미적 요소와 입체적인 4면의 디스플레이 시설,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가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전시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면

메인 미디어(W×H) : 25.970m×3.5m

투명 스크린(W×H) : 9.967m×2.7m

천장

리어스크린 : 지름 4m 원형

바닥

프로젝션(최대 W×D) : 15.1m×12.6m

OPEN SPACE EXHIBITION HALL

다감각적 교감이 가능한 오픈 스페이스

40인 이상의 단체로 방문하는 순례단의 특성과 원형의 상징화된 공간적 특수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

중앙 미디어월, 상부 스크린, 바닥 스크린, 투명 스크린 등 이머시브 미디어를 체험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설치

7.0.2 채널 서라운드 스피커 시스템을 통한 입체적인 사운드 구현



“함께 기억하고
바라보는 서산,”

서산에 다가가고 그리는 이야기

서산을 바라봅니다.

상상을 하고 그려갑니다.

복잡하기에 교류가 활발했던 바다

낮아서 더 평화로워 보이는 산

특별한 역사를 품어 사람의 삶의 모습을 닮아 보이는 해미읍성

상점의 물건을 골라보느라 정신없는 모습,

물건을 파는 중국인들,

아이들과 함께 장터를 구경하다 잠시 쉬는 모습,

맛집 앞에 모여든 사람들.

민가와 상점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신분, 성별,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함께 모여 종교를 공부하며,

서로 마주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마음을 다해 가늠하여 상상합니다.

우리의 그림이

이토록 소중한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작은 조각이 되길 희망합니다.

작가 소개

한성원

일러스트레이터. 2023년 《증언, 기억을 열고 우리를 잇다》 기획전시 (서울 시민청갤러리). 2020~2022 문화체육관광부 전자출판대상 수상, 경기도 우수콘텐츠 선정작 『할머니, 우리 할머니』 지음. 2017 한국 콘텐츠진흥원과 네이버 공동 주관 뮤지컬 〈1984〉와 〈은하철도의 밤〉 영상 디자인.

김경옥

일러스트레이터. 그림책 백과 『비바람』(어린이아현). 교과서 삽화/표지 2013년~현재. 기업 사보 및 사사 작업.

제작 AMBERIN

일러스트레이션 한성원, 김경옥

모션그래픽스 한지희

성우 이보용(한국어) 매튜정(영어)

박리흠(중국어)



“성지의 시간 -역사속 성지, 미래를 향한 해미-”



작가 소개

신하림

어울림 샌드아트 대표, UNDP Mongolia 몽골 공공의사 결정 양성평등 캠페인 영상 제작, 경북궁 별빛야행 야간관람 고종 이야기 샌드아트 영상 제작, 홍경민 신곡 〈그대가 그대라서〉 뮤직비디오 제작(외 다수).

제작 JMBERIN

연출 고동혁

샌드아트 신하림

모션그래픽스 박기범

성우 김경일 윤건 김승관

최은민 이보용



“성지의 시간-역사속 성지, 미래를 향한 해미”는 내포 지역의 천주교 교우촌 사람들의 행복했던 모습과 천주교 박해를 받아 순교 하기까지의 모습을 담은 샌드아트 미디어 영상입니다.

영상에서는 ‘조선시대 평민들의 힘든 생활 모습’과 그와 대비되어 ‘모두가 평등하고 함께 용기를 지어가며 사는 교우촌의 모습’ 그리고 ‘교우촌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나옵니다.

신분제가 뚜렷한 조선시대에서 교우촌의 모습은 양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였습니다.

독일인 오페르트 상인의 남연군 묘 도굴 사건으로 인해 천주교 박해가 더욱 심해지며, 교우촌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천주교 신자들은 포승줄에 묶인 채 기나긴 길을 걸어가며 고통을 받고 그 길 끝에서 종교적 신념을 지키며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작품에서 나오는 ‘민들레’는 순교자들의 종교적 신념을 상징합니다.

민들레가 피고, 지고, 흩씨가 되어 날아가고 다시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그들이 박해를 받아 순교하였지만, 그 신념이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 까지 전해지는 그 과정과 같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기나긴 길’은 고통의 길이었지만 그 길 끝에 행복을 찾아가는 순교자들의 모습과 함께합니다.

마지막에 현대인과 순교자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순교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이 작품을 마치며, 모래 한 알 한 알이 모여 이야기를 만들고, 다시 흩어지고, 지워지지만 영상에서 느껴진 감동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길 바라봅니다.

“생명의 찬가
부활에 이르는 길”

작가 소개

조광호

가톨릭조형예술연구소 대표, 부산 남천동
주교좌성당, 구서울역 천정 유리화, 당산철
교 대형 벽화.

제작 AMBERIN

기획 조광호 홍성환 김선정 양인수
디자인 조광호 김선정 양인수
모션그래픽스 이요한 황설아 이동은

이 작품은 성서적 메시지를 아날로그 드로잉과 디지털 아트 이미지를 배경으로 구성한 매체 예술 작품으로서,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의 창조 사업과 구세사 안에서 펼쳐진 하느님의 역사(역사)하심 및 해미 국제성지의 의미를 여섯 부분으로 영상화하였습니다. 이 작품을 위해 특별히 설정한 도상(personal iconography)과 보편적 이미지 상징은 생명의 신비와 그 희생의 신비와 더불어 디지털 아트 미디어 연출 기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세상 만물에는 하느님 생명의 숨결(오메가 포인트)이 숨어 계십니다. 이 황홀하고 눈부신 세상의 모든 생명은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에게서 나왔기에 그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름답고 신성한 생명은 하느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이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자신을 낮추시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오늘 이 자리, 진리를 위해 목숨 바치신 ‘사랑의 순교자 해미성지’를 통해 이 신앙고백은 절정에 이릅니다.

참 기쁨, 참 행복으로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역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 계심을 믿음으로 증거하며, 지금 여기에서 황홀한 주님 현현의 기쁨 소식을 세상에 선포하며, 주님께 찬미와 영광의 노래를 올려 드립니다.

“야생화”

작가 소개

신재호
미디어아티스트, 2023 06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우주의 문자》 전시, 2023 04~2023 07 부산현
대미술관 《정체성과 디자인》 치호랑 팩토리 참
여, 2022 08 하이커그라운드 《한글 바다》 전시.

제작 COSMIC RAY
제작 총괄 이성만
제작 감독 권진식
그래픽 디자인 & 모션그래픽스
권진식 권기현 유형선 김가정
AR 연출 미디어 아티스트 신재호



작품 ‘야생화’는 당신의 일상 속 다양한 감정들이 어루만져지며, 마음의 평
온을 찾는 순간과 공간들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또는 과거, 어떤 타임라인에서든 느꼈을 일상 속 위안을 3가지 테마
로 구성하였습니다.

첫번째 장면은 ‘봄의 바람’이라는 테마로 혹독했던 겨울을 지나 따뜻한 바
람이 불어올 때 당신의 고통스러웠던 마음의 한 켠을 어루만지는 듯한 느낌
으로 연출되었고,

두번째 장면은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첫 장면 ‘봄의 바람’으로 인해, 사람
들 각자의 내면에 가지고 있을 꺾이지 않는 작은 생명들이 꽃으로 피어오른
다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 장면은 메인 테마 ‘야생화’로 당신의 마음 속 작은
생명인 야생화가 넓은 들판에서 화려하게 펼쳐지는 장면으로, 현재 그리고
과거, 어떤 때였든 사람들에게 위안과 감동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태양이 저
물자 반짝이게되는 야생화의 빛과 생명들이 일렁이고 날아올랐을 때 비로소
당신은 완전한 위안과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빛의 동산”

제작 **AMBERIN**

기획 강민영 이현빈 서영명 손경빈

그래픽 디자인 강민영 이현빈 서영명 손경빈 이요한

황설아 이동은

모션그래픽스 강민영 이현빈 서영명 손경빈

1989년, 미국의 음향감시체계가 특이한 주파수를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주파수는 분명 고래의 울음소리였으나 일반적인 고래가 내는 주파수보다 1.7배 높은 52Hz의 음역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 고래는 다른 고래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주파수로 홀로 외치는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고래인 셈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고래에게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52Hz 고래’

‘52Hz 고래’는 분명 존재하는 고래이지만, 아무도 그 실체를 보지 못한 고래입니다. 아무도 이 고래가 수컷인지, 암컷인지, 어떤 종인지, 심지어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재하나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은 수많은 이들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해당 작품, ‘빛의 동산’에서 고래는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입니다. 이 고래가 유영하는 ‘동산’은 동심과 순수성이 부재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고래가 유영하면서, 동심과 순수성의 부재로 잠들어 있던 동산은 상상력을 통해 점차 깨어나게 됩니다.

“빛의 찬가,”

제작 JMBERIN

감독 박준배

기술 감독 김경원

사운드 감독 KENZIE

그래픽 박준배

기술 지원 현승철

모션캡처 김주형 조경진 김이홍 유현수 김건우

모션캡처 배우 유상화

숲 안에는 다양한 발광체들이 존재하지만, 발광체들을 밝히지 않으면 숲은 어둡고 두려운 공간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등장한 지휘자가 숲속의 불빛을 하나 둘 밝혀나가며 숲은 빛과 음악으로 가득 차 희망차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어둠 속에서 낯설고 어찌면 두려운 존재로 느껴지던 지휘자도 이내 아름다운 숲의 일부가 되어 조화를 이룹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지휘자로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장소, 시간, 사람들과 뒤섞여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따뜻하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날은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상상하며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만약 삶의 어둠을 마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에서 어둠이 걷히고 그 속에 아름다움이 숨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위해 '빛의 찬가'를 연주해 드리고자 합니다.

“빛의 도서관”

제작 JMBERIN

아트디렉터 & 합성 한지희

모델링 & 레벨 디자인 한하늘 허성훈

모션그래픽스 홍창의

‘빛의 도서관’은 어둠이 짙은 밤에만 문을 여는 신비로운 도서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고요하고 신비로운 공간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아우르는 수많은 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책들은 방문자들이 자신의 고민과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다양한 삶과 이야기를 통해 얻은 교훈들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며, 이는 개인의 내면에 있는 빛을 발견하고 자신의 길을 찾는 여정 그 자체입니다.

이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으며, 내면의 빛을 통해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희망을 강조합니다. ‘빛의 도서관’은 이러한 여정을 통해 얻는 지혜와 희망을 표현하는 작품입니다.

“빛의 랩소디”

제작 **AMBERIN**

기획 및 연출 고동혁

캐릭터 모델링 왕정건

애니메이션 김주형

레벨 디자인 고동혁 허성훈 홍창의

나무 사이로 비춰지는 빛줄기는 숲속을 환히 밝히며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새들은 나뭇가지에서 지저귀고 동물들은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일몰에서부터 시작된 이 아름다운 시간은 숲을 지나 바다에 도착하면서 밤으로 이어집니다. 빛의 조각들이 하늘을 찬란하게 수놓으며, 고래의 노래가 바다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빛은 이곳의 고요한 밤을 장식하며 평온함을 더해줍니다.

자연의 빛은 우리에게 평온과 안정을 선사하고, 휴식을 통해 다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어린 시절 동화 속 환상의 세상을 미디어아트로 구현하여, 동심의 세계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합니다.

이 작품은 자연의 빛과 소리를 통해 우리의 내면에 평화와 안식을 불러일으키며, 순수한 동심의 세계를 경험하도록 안내합니다.

만든 사람들

LG헬로비전 김계빈 안우상 신민섭 | AMBERIN 배진희 권기석 고동혁 한창민 이정빈 김경원 한지희 허성훈 한하늘 홍창의 강민영 이현빈 서영명 손경빈 이요한 황설아 이동은 현승철 박준배 | 하움디자인 이상은 이경태 민현구 | 맥클랑 박웅서 | COSMICRAY 이성만 권진식 권기현 유형선 김기정 신재호 | MOVEMENT SEOUL 김하윤 | 사운드파크 김정민 박필진 | LUGHScape 맹지아 | METADIO 김주형 조경진 김이홍 유현수 김건우 | 모션캡처 배우 유상화 | 가이드삼정 문용만 김승건 | 성우 이보용 매튜정 박리흠 김경일 윤건 김승관 최은민 이보용 | 작가 한성원 김경옥 신하림 조광호 신재호 | 대본 감수 정영주 | 역사 고증 조광(고려대 명예교수)

